

덕적도에서 굴과 사랑에 빠지다

길 따라 밋 따라

글 박찬일(셰프, 작가) 사진 정준택

인천에서 페리를 타고 50분간
순항하면 닿는 섬, 덕적도.
서해안 갯굴 하면 보통 태안반도를 떠올리지만,
굴 맛깨나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덕적도 갯굴을 최고로 친다.
스타 셰프 박찬일과 함께 덕적도로
여행을 떠났다.
겨울 갯벌의 광활한 풍경과
함께한 소박한 굴 여행.

태초에 굴이었다. 겨우내 찬 바닷물을 호흡하고 살찌운
굴이었다. 굴은 하루에 5L의 물을 삼키고 뱉어낸다. 그리하여
바닷속 미망의 입자를 궁굴려 머리가 쫄하도록 진한 맛을 낸다.
굴에게 고맙지 않을 이 어디 있으랴.





덕적도까지 배가 간다. 스마트호. 을씨년스러운 겨울 바다,
 잠행하듯 암초 사이를 하얗게 칠한 배가 간다. 섬이다.
 외로워서 섬이고 아득해서 섬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겐
 악착같아서 섬이다. 우리에게 위안은 천연덕스럽게 바위에
 붙어 있는 굴, 굴들이리니.
 덕적도 하면 강화 출신 시인 이문재가 떠오른다. 그건 순전히
 굴 때문인데, 시인의 부친은 덕적도 굴을 제대로 드시던
 분이였다. 워낙 굴이 잘고 옹골차니 젓가락으로 집기도
 애매하고, 그저 숟가락으로 푹 떠서 먹어야 한다. 자극적인
 초고추장 대신 간장에 찍어야 제대로다. 이쪽의 굴을
 강굴이라고 한다. 남해안처럼 종패를 매달아 바다 마당에
 던져두고 얻는 굴이 아니고, 바닷가 갯바위에 다닥다닥

능동자갈마당에는
 돌무리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오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마음을 담아
 얹어놓은 자갈이 훌쩍
 큰 탑을 이뤘다.



딱지처럼 얹은 굴을 캐서 얻는다. ‘쫄시개’라는 이름의 묘한
 도구가 필요하다. 날카롭게 흰 그 연장의 끝으로 굴 껍데기를
 벌리고, 굴 속살을 캐낸다. 석화라는 말은 비로소 이 덕적의
 굴을 보아야 알 수 있다. 바위에 하얗게 붙은 굴이 과연, 돌에
 핀 꽃(石花)이 한 무더기다. 허락을 받아 직접 굴을 캐본다.
 바다의 응축된 맛, 혀가 깜짝 놀란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식당에선 할머니들이 꽃처럼 갯벌에 박혀서 캔 굴을 판다.
 자연산이니 아니니, 다 무심한 분간이다. 덕적에서야 바다
 말고 굴에 보탬 무엇이 있으랴. 굴은 자연이다, 바다다. 식당의
 아낙은 나무젓가락을 권한다. 굴이 작으니 술술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기어이 이문재 부친 식으로 숟가락과 간장을 써서
 먹는다. 바다가 새끼를 친 것일까. 풍만하고 너그러워진다.

덕적도와 바로 면해
 있는 소야도 주민들의
 마을버스와 같은 통통배.

밭지름해변 근처의 민박집.
마치 과거에서 한 장면을
뚝 떼어놓은 듯한 정취가
아련하다.
(왼쪽 페이지)

민박집에는 인적이 없었다.
겨울바람에 차게 식었으나
색만은 선명한 빨간
담쟁이만 있었다.





밧지름해수욕장이다. 인적은 없고, 해송만 열병하듯 늘어서
묵묵하다. 막 심어 아직 어린 것을 파도가 약 올리듯 어른다.
그 뒤로 두툼한 해송 군락이 도열해 파도를 나무라는 것 같다.
자그마해서 정이 담백 가는 해수욕장은 마치 제주의 함덕 같다.
어머니 양수처럼 따뜻하고 안락한 바다다.
우리는 해발 292m인 섬 중심의 산 비조봉 옆으로 섬을
관통한다. 서쪽 끝의 명당이 기다린다. 능동자갈마당이다.
파도와 바람이 돌을 이 해변으로 옮기고 다듬었으리라.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자갈이 지천이다. 바위와 자갈과
사금처럼 고운 모래가 각기 다른 지형으로 이 섬을 이룬다.
자연의 그 신묘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경이에 잠시
경건해진다.

서포리산림욕장은 소나무
방풍림 사이로 난, 장장
3km에 달하는 길이의 산책
코스다. 나무 데크를 놓아
걸기도 경쾌하다.



덕적도의 식당들은 이 계절에는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덕적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세무국이라는, 해조로 만든 굴국이 답답한 속을 확 풀어놓는다.
진해서 혀끝에 오래 남는 맛이다. 까끌까끌한 해조가 혀에서
논다. 이 섬에서 가장 잘 붙는 고기는 우럭이다. 자연산의
커다란 우럭을 꾸덕꾸덕 말려 끓이는 탕이 유명하다. 장어탕도
못지않게 대단한 별미다. 뼈를 푹 고아 맛이 진하고 속으로
차곡차곡 쟁여지는 느낌이다. 여름에는 보양으로 먹고,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다. 든든하다.
해가 으스스하고, 나는 배를 탄다. 도시로 가는 귀향자는 다만
먹먹할 뿐이다. 파도가 다시 인사한다. 입 안에 굴 맛이 가득
남았다. 덕적도다.

새마을연수원 마당 벤치에
앉았다. 폐교를 부활시킨
이곳은 덕적도의 북쪽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갯바위에서 갯 따 굴 맛은
바다 그 자체다.
덕적도 굴은 알은 작지만
향이 진해 서해안 강굴 중
최고로 친다.
(왼쪽 페이지)

서포리해변에는 해초가
뒤덮여 있다. 잔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짚물에
달아도 잘 사는 해초의
일종이라는 것이 덕적도
주민의 전언.

박찬일



1965년생. 월간지 기자로 일하다 1999년 사표를 던지고 ICF 요리학교에서
음식을 공부했다. 2002년 귀국해 '뚜또베네', '트라토리아 논나' 셰프를 거쳐,
현재 홍대 앞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폼마'의 오너 셰프로 있다. <지중해 태양
의 요리사>, <보통날의 파스타>, <어쨌든, 잇태리> 등을 출간했다.

Map

덕 적 도 BEST 9

덕적도는 관광지치고는 작은 섬이다. 여름휴가철이 아니고서야 여행객의 발길도 뜸하다. 그래서 겨울의 덕적도는 구석구석 고즈넉한 여유가 있다. 겨울 덕적도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아홉 가지다. 보고, 먹고, 쉬는 덕적도 여행법.

① 회나라식당

도우선착장을 나와 처음 눈에 들어오는 식당. 씨알이 굵은 장어로 만든 장어탕(중 3만 5000원, 대 4만원) 이외에도 독특한 해초로 만든 세우국(7000원), 건작탕(중 4만원, 대 4만5000원) 등 독특한 지역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3
문의 032-831-5324



④ 큰이마

덕적도는 낚시꾼들의 천국이다. 밧지름해수욕장에서 서포리해수욕장 방향 도로에서 절벽 아래로 긴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큰이마는 낚시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갯바위 낚시 포인트. 장어, 우럭, 놀래미 등이 잘 잡힌다.

위치 밧지름해수욕장과 서포리해수욕장 사이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⑦ 서포리산림욕장

서포리해수욕장과 면한 적송 방풍림을 잘 정비해 길이 3km의 산림욕장으로 꾸렸다. 향긋한 피톤치드 향에 감싸여 산림욕을 즐겨보자. 산림욕을 할 때는 최소 3시간 이상 숲 속에 머물면 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산림욕장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② 덕적가든

덕적도의 식당은 겨우내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덕적가든은 도우선착장 앞 식당촌에 있다. 굴회(1만원)는 기본, 간재미짬(1만원)도 추천 메뉴다. 양식산과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재료를 쓴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5-2
문의 032-833-9933



⑤ 서포리 해변

덕적도에서 가장 변화한 관광지.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변은 겨우내 개점휴업 상태. 흰 모래사장을 뒤덮은 마른 해초를 위로 캠퍼 한둘이 나타나 텐트를 치는 것이 전부다. 길이 2km의 해변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⑧ 서포리아

덕적도는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진다. 밤이 되면 놀 것이 없다. 서포리에 위치한 펜션 서포리아는 노래방, 야외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골프 연습실, 사우나 등 놀이 시설이 많은 것이 장점. 객실 요금은 비수기 기준 10만원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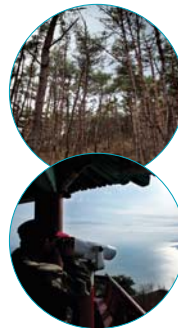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315-1
문의 032-851-2323



③ 비조봉

덕적도를 찾는 또 하나의 기쁨은 바로 등산. 높이 300m 내외의 알은 봉우리를 탐사해 서해의 운무와 작은 섬을 조망해보길. 남쪽으로는 비조봉 코스, 북쪽으로는 국수봉 코스가 각각 3시간 이내의 산행으로 인기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비조봉
문의 덕적면사무소 032-899-3717



⑥ 올레회식당

서포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식당. 덕적가든과 마찬가지로 섬에서 구한 재료로만 그날그날 요리해준다. 칼국수(6000원)가 유명하다. 그날 들어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매운탕도 추천 메뉴. 가격은 소 3만5000원, 중 4만원, 대 4만5000원.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540-40
문의 032-764-8888



⑨ 새마음연수원

덕적도는 학생 수가 적어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 과정을 한 학교에서 진행한다. 새마음연수원은 폐교된 명신보교를 인수한 숙박 시설. 식사는 물론 갯벌 체험 등 덕적도의 숨은 면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124-1
문의 032-834-2119



Map

도 적 도

덕적도 가는 법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대부항에서 덕적도에 들어가는 배가 다닌다.
인천항을 이용하면 쾌속선은 1시간 10분, 자월도 · 승봉도 · 이작도를
경유하는 배는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운항 시간은 매일 다르므로
홈페이지 정보를 참조할 것. (<http://dom.icerry.or.kr>) 인천항~덕적도
쾌속선 왕복 요금은 4만2300원이다.

- ① 회나라식당
- ② 덕적가든
- ③ 비조봉
- ④ 큰이마
- ⑤ 서포리 해변

- ⑥ 올레회식당
- ⑦ 서포리산림욕장
- ⑧ 서포리아
- ⑨ 새마을연수원
- ⑩ 서포리선착장

- ⑪ 밧지름 해변
- ⑫ 국수봉
- ⑬ 능동자갈마당
- ⑭ 도우선착장
- ⑮ 북리등대

